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으며

김 규 철

(회원, 범민련 부의장)

천지를 진감시킨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꼭 1주년이 되었다. 남북의 두 고위급 당사자가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손을 잡고 번쩍 치켜들었을 때 칠천만 민족은 가슴이 벅차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던가. 반세기의 반목과 대결로 서로 적대시하던 의식을 화해와 단합의 환경으로 일시에 바꾸어 놓았던 대역사적 사변,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위대한 전환적 국면이었다.

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금강산에서는 민족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남에서는 400여 명이나 대거 북으로 올라갔고 북에서는 200명이 합류해 600여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여 그야말로 민족대토론회가 열렸다. 그것도 남에서는 7대 종교단체가 어울렸고 관변단체라는 민화협(범민족화해협의회)까지 합세했다. 48년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연석회의를 했던 광경이 떠오른다. 그때의 사회적인 환경과 지금의 사회적인 환경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이러저러한 분석이 과학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흔히 남북이 분단된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지만 더러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음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는 쪽이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단된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되었건 그것은 내부적인 힘으로 해결지워졌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은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제의에 의해 소련이 합의하여 38도선이라는 위도로 남북을 일단 갈라놓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7구국선언이 바로 그것이었다. 시위도 해봤고 무력도 다 동원되었지만 실패했다. 그렇다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당시 해방 공간에서 가장 많은 당원 수를 확보하고 있던 남로당은 사회경제적인 실정에 맞지도 않는 교조적인 이론을 내세웠다. 바로 '8월테제'가 그것이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겠다 했다. 사용주가 형성도 안 되어 있는데 계급 이론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군이 진주하여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떠벌리고 있는데도 해방군인 양 착각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적인 단결을 이루어 내야 했다. 당시 농민이 78%이고 보면 친일과 지주를 척결하고 봉건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군에 대항해 싸워야 했다. 48년도 무장을 했을 때는 이미 미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였다. 월남이 원시적인 무기로 최첨단의 무기와 싸워 미군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단결이었다. 무기는 싸움에 있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외세와 결탁한 분자들을 최소화하여 고립시켜내고 민족이 대단결해 냈던 것이다. 서독의 경우 전쟁의 패망을 딛고 재기하려는 몸부림은 바로 실패의 교훈에서 그 해답을 터득한 것이었다.

미국이 소련과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재무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마련해 간 반면, 동독은 코메콘에 얽매어 소련의 패권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다. 미처 생산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사회보장제는 생산력을 위축시켰다. 북에서는 자립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의 코메콘 가입을 강요받았지만 수준에 맞게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지 않았으며 중공업 토대를 구축해 놓고 경공업으로 전환시킨 것은 그 좋은 예다. 흡수통일이 되었건 무력통일이 되었건 다 같이 통일은 그 민족들의 소망이었고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였다. 우리도 한결같이 통일을 갈구하고 있다.

남북민족이 화해하고 신뢰하며 단결만 해낸다면 미군 몰아내기는 쉽다. 문제는 미군을 아직도 우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민족대단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원로실천단이라 해서 대부분이 통일광장 어르신인 그들과 더불어 6.15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제2차 정상회담 성사,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NMD·TMD구축 저지를 위한 범국민선언"을 위해 서명을 받으러 Y대에 갔었다. 최고 지성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에게서 다소 실망을 느꼈다. 6.15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가 하면 MD가 무엇이냐고 묻는 학생이 더러 있는 데 놀랐고 왜 미군이 나가야 되느냐고 항변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당연히 MD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하는 쓸개 빠진 녀석들도 있었다. 이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던가.

아무튼 남쪽에서 50년 전쟁 시기 미군이 후방에서 그 많은 양민학살을 저질러 놓고 위협적으로 군림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지속적인 탄압을 가함은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득세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었다고 그 속에서 강요받은 반공교육은 순진한 어린 학생들의 잠재의식에 굳혀지기에 충분했다.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을 분철하여 거짓으로 기만했어도 모두 순진하게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북한사람은 피부가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났다고 해도 끝이들었다. 그런 환경에서 미국의 장학생 만들기로 미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출세고지로 만들어 문화적으로도 미국의 식민화가 되었다. 경제적인 모든 구조를 예속화해갔다.

군사적인 것, 즉 한국 군작전 지휘권 미군이양에 관한 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한국이 주종관계처럼 되어 있음을 확인하기는 쉽다. 오죽하면 지난 3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갔을 때 앤드류 공항에 영접 나온 것은 주한미군 대리대사와 앤드류 공군 부사령관, 국무부 차관보가 고작이었다. 국민으로 이런 수모가 또 있으랴. 조명록 차수가 델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는 평화회담 특사와 국무부 의전담당관이 국빈 대접을 했다. 하기가 역대 대통령치고 예속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만은 그렇게 예속되었으니 그 수모야 받아 마땅하겠지. 작년 6월 13일 이북으로 날아갔을 때도 자기의 통일외지로 올라간 것이 아님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 아닌가. 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미끼로 평화정착이라는 미국의 영구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라갔던 게 아닌가. 그러나 김 대통령이 내재하고 있는 민족적인 양심에 불을 당겨 자주를 합의해 냈고 연합체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내는 전환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6.15정신은 겉으로 표현되어진 이것만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주적으로 모는 대표자격인 당사자였지만 국민으로 영접하였고 그것을 달고 합의에 이른 것은 ‘구동 존이’라 해서 같은 것을 합의하고 다른 것은 잠시 접어두는 등, 그 이면에 숨은 정신이 있다. 이것까지가 다 6.15정신이다.

미국의 식민지구조는 체제화되었고 체제는 사회환경과 상호의존하고 있어 이는 체제유지라는 사회적인 속성을 동반한다. 그러기에 체제에서 굳어진 인식을 바로 세우자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송두율 교수는 분단체제나 분단 구조로 부르지 말고 변화와 발전을 전제로 한 분단시대로 함이 좋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체제는 지속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시대는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쉽게 변화가 오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하지만 변혁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은 쉽게 인식을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원흉이 미국이요 만악의 근원도 미국이다. 미국의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도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때로부터 50년까지 미국은 한국을 분단하고 민족을 둘로 갈라 서로 악마로 만들어 놓고 50년부터 53년까지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으며 53년 이후로는 남쪽은 착취의 대상으로 북쪽은 고사대상으로 경제적인 봉쇄 등으로 수백만의 학살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미제요 미제의 축출만이 민족의 활로가 열린다. 미군철수는 민족대단결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군의 양민학살이 폭로된다면 민족의 일원으로 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자 없으리라. 미국이 우방이라는 생각에 썩기를 박고 미국 반대에 일떠서게 해야 한다. 이제 노동자도 농민도 미국 반대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사대매국적인 예측성은 마땅히 규탄되어야 한다. IMF 이후 미국의 요구에 예측성을 드러냄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다만 자칫하면 6.15공동선언 이행이 김대중 정권에 손을 들어 준다는 논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6.15이행을 외면하려 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남북이 연동해서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민도 노동자도 출구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모두 묶어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대매국세력을 최소화하고 고립시켜 내어야 한다. 합법적인 공간이 그 틈만 보인데도 쟁취해내야 한다. 그것이 곧 대중을 확보해내는 길이다. 6.23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성사시켜 미군의 범죄상을 세계만방에 폭로하고 확인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굳건히 하고 안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자아내게 해야 한다. 6.15~8.15 민족통일운동 촉진기간에 우리의 자주성, 주체성을 확립해내야 한다.

통일의 미래는 밝다. 망나니같이 하늘도 모르고 깨 춤 추듯 날뛰던 부시도 수그러들고 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이다.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국회의원을 추동해 내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반통일적이고도 반민족적인 반동성을 폭로하고 재선 저지에 나서야 한다. 금강산 대토론의 성과는 6.15선언 이행의 가시적인 변화를 내어 올 것이다. (2001년 6월 18일 사월혁명회 창립 13돌 간담회에서)

사월혁명회보 제61호(2001.7)